

여섯 감각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이 수행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여섯도독을 때려잡고 쫓겨난 손오공

현장법사와 손오공의 첫 출발에 여섯 도독이 분수 모르고 길을 막다가 손오공에게 일방타진된 것. 매우 잘 된 이야기인가요? 마음 원승이가 제 갈 길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장애는 바로 여섯 감각기관과 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감정적 파문들입니다. 이것을 일거에 잠재워버렸으니 정말 쾌거라고 할까요?

“마음 원승이가 바른길로 돌아서니 여섯 도독이 자취가 없어지네!”하는 제목도 축하를 하는 분위기 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일이 좀 맹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우선 일이 좀 맹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유기의 전개를 말합니다. 손오공이 여섯 도독을 때려죽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현장법사가 엄청 마음이 상했네요. 불자의 근본이 무엇이던가요? 생명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근본은 지혜와 자비라 말하지요. 그리고 자비라는 말은 결국 생명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불교의 근본에 충실하고도 충실한 삼장법사가 어찌 여섯 도독을 단말에 때려죽이는 행태를 목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야단을 쳤지요. 어찌 그리고도 자비심이 없는 것이냐고요.

그런데 손오공은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지요. 우선 손오공은 여섯 도독을 때려죽였다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천궁을 휘젓던 제천대성 손오공 앞에서 감히 날뛸 놈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었느냐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불찰해 오행상 아래 고생을 하면서 좀 성질이 죽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하무인인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현장법사 모시고 가는 것만 해도 정말 '손오공 사람 되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 손오공, 당연한 일을 했다고, 아니 오히려 공을 세웠다고 으쓱해 하는 손오공을 야단쳤으니 사단이 날 수밖에요.

“에이, 데대한 중놈 모시고 가려고 참고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찍 때려치우는 게 좋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가보셔. 이제천대성 손오공은 갈 길로 가겠어요”하고, 근두은 불러 타고 떠나버린 거죠.

현장법사,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인도까지 갈 길이 없는데, 모처럼 맛은 제자 겸 수행원이 바로 도망가 버렸으니…….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전개가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독이라 하더라도 단말에 때려죽이면 안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 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손오공은, 겨우 바른길로 돌아왔지만 아직 철철 지 않은 천둥벼락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힘을 행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야단맞으면 빠지고 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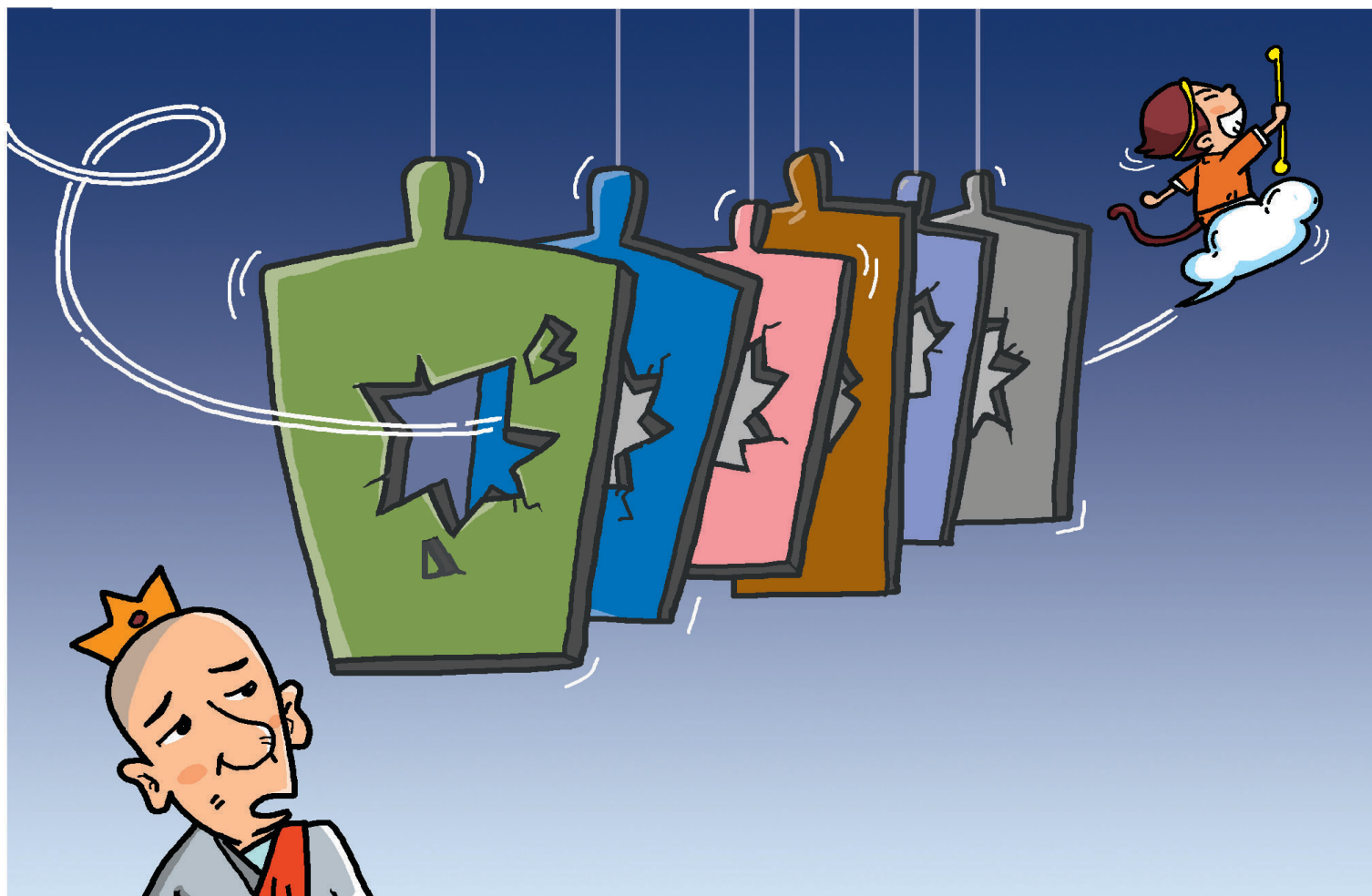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이치로 보아서도 여섯 도독을 다 때려죽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여섯 도독은 여섯 감각기관인데 여러분, 그 감각기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그것을 좌악으로 보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부릴 수 있으면 되지, 그것은 나쁜 놈들이나 무조건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것들을 도독으로 만든 것이니까, 내가 잘해서 그것들을 하인으로 부려야지요. 여섯 도독에서 여섯 하인이라,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옛적, 삼패 선생이 도사(道士)끼가 충만하던 시절 얘기가 떠오르네요. 교수님들까지 낀 꽤 많은 인원이 송광사로 수행 대회를 갔어요. 그때 조계총림 방장 스님이 구산 큰 스님이셨지요. 거룩한 법문을 해 주셨어요. 바로 그 법문 내용이 우리가 만난 이 대목의 이야기였지요.

‘심원육창(心猿六畜)-마음 원승이와 여섯 창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승이가 여섯 도독에 마음을 빼앗겨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니, 여섯 도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구나! 이런 말씀이었죠. 참으로 수더분한 시골 할아버지 같은 구산 스님 감화력에 여러 도반들 흠뻑 취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고요한 산사의 밤, 9시쯤 되었을 거예요. 잘 시간이라 거의 다 누웠는데 좀 떨어진 저 쪽 방사에서 “오악~!”하는 찢어지는 비명인지 고향인지 모를 소리가 들렸지요. 고요한 산사의 밤에 울리는 비명소리라, 무슨 괴기야담 같은 이야기네요. 실제로 사람들이 좀 놀랐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섯 도독은 여섯 감각기관을 의미 감각 제거가 아닌 다스리는 것 화두에 순일하면 저절로 풀려

또 한 번 그런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바로 교수님께서 제 있는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상당히 놀라신 모습으로 “성군, 내방 옆에 방을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자네가 한번 가보겠나?”

교수님도 참! 가까운 당신께서 가지지 않고 저를 찾아오실 건 또 뭐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제 품포가 상당히 도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그래서 슬슬 가서 방에 들어가 보니, 어두운 구석에 웬 사람이 앉아서 중얼중얼하고 있었어요. 불을 확 켜고 보니 제 후배인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반쯤 풀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모두 도독이야, 도독!”하는 거 같았어요. 일단 정신 차리라고 어쨌죽이를 한 대 후려갈기곤, “뭐가 도독이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저 물소리도 도독이고, 바람소리도 도독이고, 풍경소리도 도독이야!”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삼패선생, 이게 무슨 사단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항~ 이 친구, 낮의 구산 스님 법문에 큰 감명을 받고 혼자 좌선을 하면서 그 도독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용을 쓴 모양이구나. 그래서 물소리나 바람소리 등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 않으려 용을 썼는데도 도저히 그게 안 되니 이런 지경에 빠졌구나. 아까 고향 내지 비명은 그 도독 물러가라고 외친 것이었구나.

사태를 짐작하니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쨌죽이를 후려치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지요.

“이 친구야! 네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저절로 도독이 물러갈 일일! ‘저 소리라’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을 빼앗긴 것 아니야? 이미 빼앗겨 놓고 어떻게 안 빼앗긴단 말이지!”

그리고 다시 한 번 후려쳤죠. 하하. 그랬더니 이 친구 눈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차분하게 타일렸죠. 화두를 들든가 하는 일 자체에 온 마음을 쏟으면 되는 것이다. 쪼잔하게 소리를 적으로 의식하면 안 된다. 내가 화두에 순일하게 되면 저절로 도독은 물러가는 법인데, 그것을 도독으로 의식하고서야 어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의식하는 순간 벌써 빼앗긴 것이거든? 그랬더니 무언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거리길래 다독여 주고 나왔던 정말 아주 옛날의 추억이군요.

하하. 삼패선생 꽤 그럴 듯 했죠? 나칠계님, 삼패도사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일어나시죠? 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에 대한 찬탄이라면 피치 못할 일이니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도사스러웠다면서 지금은 왜 그리 체신머리가 없느냐구요? 예잇! 이젠 체신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죽은 도사끼를 벗어던지고 보다 높은 경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도사끼 벗어던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면도사라구 아세요? 무식하지만 그래도 한자로 써드릴 수밖에 없네요. 면도사(免道士)라고요. 도사도 면하였다. 도사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도사끼를 보이며 도사에 머무르는 것도 넘어서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면도사

가 도사보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요. 그 위에 경지도 있어요. 안마사라구……. 단순히 도사에 머무는 것을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생을 주무르러, 아니 어루만지러 나와야 하는 것이랑요. 그래서 도사보다 높은 경지는 면도사요, 면도사보다 높은 경지는 안마사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대해, 불교의 수행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 대목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더군요. 잡생각과 망상, 감각에 들어오는 많은 방해들과 싸워야 할 한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에 들어가 마음을 좀 집중하려 하면 오히려 더 번뇌망상, 잡념이 더 끊는 것 같지 않던가요? 저도 겪어 봤고 고생도 했습니.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우리는 번뇌망상의 흐름 속에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떠내려가기에 흐름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그 흐름 속에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우뚝 서는 형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거센 번뇌망상과 잡념의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 흐름에 쓸려 몇 번 다시 넘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차츰 잡념이 줄고, 내 수행이 순수하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식하고,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을 없애려 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요, 그것에 지는 것입니다. 곳곳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것, 서둘지 않고 뚜벅 뚜벅 큰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왕도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진지해지니 나칠 계님은 정말 수면상태에 빠지셨군요. 깨우면 그것도 삼매 수행이라고 우기실 것 같으니 방해 없겠습니다. 쫓쫓~

서유기에서 제가 말한 심오한(?) 의미를 바다에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장법사는 호되게 손오공을 야단쳤고, 발끈한 손오공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직 길 안든 마음, 어찌 어찌 바른 길로 돌아왔지만 차분하게 한 길로 가지 못하는 마음의 행태가 나오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한번 발심을 한 마음은 한 때 방황하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법성계(法性偈)의 구절이 생각나네요. 좀 해매 돌더라도 언젠가는 바른 깨달음에 이를 우리의 마음, 언젠가가 그 지나는 과정에서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디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뿐이니! 그러니 뻔 도라져 달아난 우리의 마음, 철없는 우리 마음, 가없는 우리 마음, 손오공도 바로 돌아와서 바른 깨달음의 길을 주욱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소식 하면 외칠 거예요.

“미망 속에서 헤맨 구만리 길이어! 그 긴 세월이여! 지금 이 깨달음에 그것들 어디 불을 자리가 있는가! 꿈속에서 헤맨 때는 그리 길고도 멀었거늘!”

어허!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제가 예전의 도사 끼를 자꾸 부리는 것 같네요. 열면 수습하고 다시 면도사, 안마사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 다음에는 가출했는지? 손오공 다시 만나겠지요?

법당조성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일생동안 불교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행도 많이 하여 법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행을 하고 법보시도 합니다. 법당을 조성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가문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은 태아영가, 조상영가천도와 기도를 해드립니다.

상담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후언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후원도 좋고 훌륭한 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 대학입시 합격기도 전화상담가능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한국최초 특허받은 장례묘(화분장)! 특허 제10-1467668호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으십시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 ◆ 가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 17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 상초화사, 지역장례시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 영기등, 천도제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중사자분들과 개인도지보유 자분(인야/개방제한구역인야 제외) 동지(전/담 보유하신 분) 우선권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사업주님들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생남 흥)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남(생남 흥) | 제주도 | 대구 | 울산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 서정용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 김성만

◆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 성지하이츠 2차빌딩) ◆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